불량서클 완전해체 학생인권존중 실천

동남고는 지난 11일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량서클 완전 해체 및 학생 인권존중 생활지도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는 11일 오전9시 교내 운동장에서 전 교사와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불량서클 완전해체 및 학생 인권존중 생활지도 실천 다짐대회를 갖고 학교폭력을 추방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대행 동남고등학교 교장은 "우리학교에는 학교폭력이 없지만 사소한 폭력이라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학생대표는 불량서클 및 인권침해가 없는 맑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희망경기교육의 지표인 세계인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선서를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준법풍토를 조성하여 불량서클의 결성을 예방하고 해체시켜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선다.▶우리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생활지도의 실천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도덕적 학교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우리는 희망경기교육 가족의 일원으로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동남고등학교는 불량서클 완전해체 및 학생 인권존중 생활지도 실천 연수 프로그램으로 부장교사 연수와 교사선서에 이어 이날 학생선서식을 가졌으며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교내·외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사회 재활사업 디딤돌

경복대학 작업치료과 '누리 보듬제'

경복대학 작업치료과는 지난 14일 경복대학 우당관 5층 우당홀과 3층에서 제1회 경복대학 작업치료과 '누리보듬제'를 개최한 가운데 학술제를 찾은 내빈들이 실습실을 둘러보고 있다.

경복대학(학장 황병기) 작업치료과(학과장 양경희)는 지난 14일 오후2시부터 경복대학 우당관 5층 우당홀과 3층에서 제1회 경복대학 작업치료과 '누리보듬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홍성훈 포천시의회의장, 장애인시설장, 장애인 등 내빈과 황병기 학장,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식후행사 나뉘어 진행됐다.

학생과 내빈이 함께 한 개회식에 마련된 학술 발표회에서는 ▶학생대표 장순석 학생의 '우리나라 작업치료의 현실태' ▶졸업생인 서울아산병원 정원규, 포천시보건소 권기범, 특수학교인 정문학교 김영민, 곰두리두레마을 김명선, 해오름 장애전담 어린이집 최미숙씨의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식후행사는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실습실 라운딩 ▶정민예 대한작업치료협회장의 '향후 작업치료 정책방안' ▶지석연 경복대 작업치료과 겸임교수의 '미·일본 작업치료 이론과 실천의 발전과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양경희 경복대학 작업치료과 학과장은 "이번 학술제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했다"며 "학술제를 밑거름으로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활력과 작업치료 분야의 홍보와 보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42)

마당 질들이기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마당 질들이기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큰 공사랍니다.

아버지는 고무래와 넉가래를 만들어 물먹은 흙을 써레질하듯 밀고 다니시며 고루 펴 평평하게 골라 놓으셨어요.

이튿날 오후가 되자 따사로운 햇볕을 받아 마당은 꾸덕꾸덕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위에 방아를 찧고 남은 왕겨를 몇 가마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헌 멍석과 헌 가마니, 헌 돗자리 등의 자리들과 볏짚을 고루 펴십니다.

"얘들아! 나와 마당 밟아라!"

우리들은 다른 곳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마당 밟기에 동원됩니다.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니 제리를 밟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마당을 밟아 단단하게 굳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주신 큰 숙제입니다.

면이 넓적한 떡메로 두드리기도 합니다. 긴 물푸레나무 작대기도 두드리는데 한 몫 하지요. 절구통을 옆으로 눕혀 그 위를 올라타 서커스단 흉내를 내며 발로 굴리고 다닙니다.

아마도 연 이틀은 밟고 뛰며 절구통을 굴렸나 봅니다.

멍석과 가마니, 그리고 볏짚을 걷어내고 왕겨를 댑싸리비로 쓸어내니 어느 정도 굳었습니다. 맨발로 딛으니 촉감이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시원하고 맹글맹글하니 촉감이 좋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이 더욱 굳어지라고 우리들에게 딱지치기와 팽이치기를 시키십니다.

딱지치기는 땅을 두드리며 치는 놀이이므로 마당을 굳히는 데는 유용한 놀이입니다.

팽이치기도 그렇습니다. 팽이를 치려면 채찍으로 팽이의 옆면을 쳐야하는데 마당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땅을 밟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땅을 밟는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자치기는 새로 질들인 마당에서 할 수 없는 놀이입니다 유리구슬로 하는 댕구치기도 못하게 하는 놀이구요. 자치기는 땅을 일자로 파 놓고 하는 놀이라 못하게 하였고, 댕구치기는 구멍을 더욱 많이 파야했기 때문에 극구 말리시는 놀이랍니다.

마당에 질이 완전하게 들여지면 참깨며 들깨는 물론 콩팥타작이며 절구통은 놓고 태질하거나 발로 밟는 탈곡기로 탈곡을 합니다. 또 머리빗을 하늘로 세워 놓은 듯한 훌치개(훑태)로 벼를 훑기도 합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질들인 마당에 강냉이를 튀기는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강냉이튀기는 기계를 돌려주려 애를 씁니다. 아예 순서를 정해놓고 앉아 기계를 돌려줍니다. 아저씨께서 강냉이를 한 방 튀기고 나면 망태기에 남은 강냉이를 한 됫박씩 주시거든요.

부잣집 아이들은 쌀강냉이를 튀기지만 우리집은 한 번도 쌀강냉이를 튀겨본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강냉이장사가 며칠이나 튀기고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 되면 큰 인심 쓰시고 옥수수 강냉이를 튀겨주시지요. 그 날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겨울에 가래떡을 말려 강냉이를 튀긴 것은 과자처럼 더욱 맛이 있습니다. 콩 강냉이는 별로 커지지 않는답니다. 그냥 사카린을 넣어 튀기니 달작지근한 맛을 먹는 것이지요.

추석 전날은 아주 늦게까지 강냉이를 튀겼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동네서 몇 리 떨어진 사당말이란 동네에 사신답니다. 우리들은 큰 산짐승이 나온다는 조침리 근처 새능모퉁이까지 아져씨를 바래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저씨는 리어카가 뒤가 무겁다고 하시며 누가 한 사람 앞에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가위바위보를 하였고 내가 이겨서 앞에 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리어카를 뒤로 돌려 밀고 가시고 아이들은 함께 조잘조잘 이야기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한참을 리어카 앞에 타고 가던 중인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이들은 모두 도망가고 나만 혼자서 리어카를 타고 가고 있지 뭐예요? 리어카는 벌써 새능모퉁이를 돌아 조침리 초입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내려주세요!"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신작로 옆에는 산소를 파간 자리가 보였습니다. 몇 번씩이나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돌아왔고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오리는 '뻥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흩어진 동심과 옛이야기를 주워 먹고 자라납니다.

(계속)

삼정초등학교 제주도 무료수학여행

2006년 수학여행 중국 계획

삼정초등학교가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동심이 어우러진 삼정초등학교(교장 한태현)가 3, 4, 5, 6 학년을 대상으로 최근 2박3일간의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제주도 수학여행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학교측의 예산과 삼정초 총동문회, 금마고속관광(주), 청산 식물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한태현 교장은 "이번 제주도 수학여행으로 학생들은 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내년 수학여행은 중국으로 갈 것을 학생들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정초는 전교생이 총 57명으로 관내의 초 미니학교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1일 부임한 한태현 교장은 양주 덕현초 교장에서 현재의 삼정초 초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삼정초는 현재 교사 2명과 행정실장 1명이 학생들 교육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한 교장 부임이후 11명의 학생수가 증가해 기존의 3학급에서 현재 4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 교장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컵스카웃트 단체를 창설해 봉사정신함양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근 허브랜드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한 중국어 교육과 학교측의 골프연습장 신설로 "중국어 잘하는 학교"와 "골프 잘치는 학교"를 지향하며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가을하늘을 흐르는 마음처럼

포천中 은행제 3일간 개최

포천중학교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4회 은행제 축제를 개최했다.(사진은 지난 17일 개최된 개막식 장면)

포천중학교(교장 차태남)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4회 은행제 축제를 개최했다.

은행제는 포천중학교 학생들이 한해동안 쉼 없는 노력과 열정을 모아 준비한 솜씨를 뽐내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

축제 1일째인 지난 17일에는 오전부터 식전공연으로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진데 이어 은행제 개막식, 기악합주, 창작무용, 트럼본 독주, 설장구 연주, 영어 연극, 보디빌딩 시범, 피아노 독주, 합창, 댄스스포츠, 공수도 시범, 포천시립합창단 공연, 마술시범 등 학예발표회로 구성됐고, 오후에는 1학년 에어로빅, 역도시범, 태권도 시범과 최고의 지성찾기, 속풀이 한마당, 팔씨름대회, 책돌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2단 줄넘기, 거북이 자전거 등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축제 2일째는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타자와 경진대회, 스타크래프트 대회, 먹거리 장터, 개그맨 박성호, 아주대 응원단 등이 출연하는 야간 축제로 이어졌다. 축제 3일째는 체육대회 결승이 펼쳐졌다.

한편 축제기간 중에는 시화전, 사진전, 꽃꽂이, 프라모델, 역사신문, 영어편지 및 신문, 곤충만들기, 이야기그림, 집만들기, 정물화, 시범실험, 서각, 미니어쳐, 뜨개질, 한지공예, 종이접기, 퀼트, 모형선박, 학부모 작품 등의 전시회도 함께 마련돼 학생들의 솜씨자랑과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은 가슴으로, 안전은 지식으로"

산업재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어떤 사고를 신고하나?
–사망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2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산재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3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산재보상을 위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2가지중 한가지만 하면 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종전의 년 1회에서 금년부터 년 4회로 늘렸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의 1일~7일 사이입니다.

●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미신고로 인한 사법처리가 유보됩니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